즉시 배포용: 7/29/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와 SCHNEIDERMAN 검찰총장, 100여명의 성직자, 커뮤니티 리더 및 주 의원들을 상대로 특별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브리핑 개최

Andrew M. Cuomo 지사와 Eric Schneiderman 검찰총장은 오늘 법집행 관리들이 야기한 비무장 민간인 사망 관련 건에서 특별검사로 뉴욕주 검찰총장을 선임하는 행정명령 제147호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또한 특별 검사가 민간인이 자신의 사망 시점에 무장한 위험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에는 100여명의 성직자, 커뮤니티 리더 및 주 의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사법 제도는 시민들의 신뢰 없이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의 커뮤니티들을 괴롭혀온 신뢰 위기를 해결하기 뉴욕주가 행동해야만 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경찰 연루 민간인 사망 사건이 독립적으로 진실되게 취급되도록 함으로써 사법 제도 신뢰성을 복원합니다. 본 행정명령은 실제적 및 인식된 이익충돌을 다루며, 신뢰를 재건하고 사법 제도가 이 주 전역의 모든 동네의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주 커뮤니티에 평등한 정의가 존재하도록 하고 그것이 항상 존재할 것임을 대중이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 오늘 성직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라고 **Schneiderman 검찰총장이 말했습니다**. "성직자는 우리가 위기의 때에 지도와 힘을 위해 모두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커뮤니티와 선출직 리더들 사이의 연결 조직으로 행동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비극적 사건에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련한 팀을 구성하였으며 본인의 실은 그 사건들을 최고 수준의 주의와 전문가 정신 및 독립성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상원의원 Ruth Hassell Thomp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경찰의 비행 주장을 검토하기 위한 독립된 정의의 길을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명령은 법집행 관리의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힘의 사용이 사망을 야기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마다 모든 경우에 검찰총장이 관할권을 갖도록 합니다. 검찰총장이 이 특별한 타입의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뉴욕주민, 희생자 및 법집행 관리들은 이러한 사건이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취급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단지 말뿐이 아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명령은 우리를 그쪽으로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하원의원 Nick Perr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국이 사법 제도에 대한 편향 문제로 휘청거리고 있는 때에 뉴욕주는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 궐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연루 민간인 사망 사건을 취급하도록 독립된 특별검사를 선임하는 것은 우리 법원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고 뉴욕주를 전진시킬 기념비적이고 혁명적인 조치입니다. 전국의 다른 커뮤니티들도 이런 종류의 개혁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여기 우리 주에서 그것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신 Cuomo 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하원의원 Walter Mosl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최근 달에 너무 종종 우리는 법집행 관리의 손에 의한 비무장 민간인의 사망 후에 그것이 의문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Cuomo 지사의 행정명령은 이 전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첫 걸음이고 모델입니다. 본인은 나서서 조치를 취하신 주지사께 찬사를 드립니다."

하원의원 Michael Blak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Black, Puerto Rican, Hispanic and Asian Caucus의 제2 부회장 겸 형사정의 태스크포스의 공동 단장으로서 본인은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대담한 조치를 취하신 Cuomo 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대중의 신뢰는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죽일 때마다 부서집니다. 주 검찰총장이 이러한 사망을 검토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면 이 매우 곤란한 사건들에서 절실히 필요한 신선하고 공정한 관점이 생길 것입니다."

하원의원 Latrice Walk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특별검사를 선임한 Cuomo 지사의 결정은 긴요한 첫 걸음입니다. 이러한 수사에 공정성을 가져옴으로써 우리는 경찰과 검사 사이의 충돌에 대한 대중의 손상된 인식을 고칠 것입니다. 본인은 그 길을 선도하신 주지사께 박수를 보내며 다른 주들도 그 길을 따를 것을 기대합니다."

뉴욕주 신뢰기반 커뮤니티 개발실 실장 Karim Camar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행정명령은 우리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현상 변경입니다. 주지사는 힘 없는 자를 위해, 목소리가 없거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자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보호해야 하는 사법제도에 불신을 느껴온 우리 주 전역의 커뮤니티들을 위해 궐기하여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를 위한 획기적 조치로서 정의가 살아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의 집 오순절 교회 Herbert Daughtry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소수자 커뮤니티가 안전하고 경찰 비행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Cuomo 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변화는 정확하게 뉴욕주에 필요한 것이며 저는 이것이 전국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국 라티노 복음연맹 총재 Gabriel Salguero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와 전국의 유색 커뮤니티들은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었는데 대개 무엇보다도 Eric Garner, Anthony Baez, Freddy Gray 및 Walter Scott의 사건 같은 경우 때문입니다. 뉴욕주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최초의 주인데 우리는 우리 주가 50개 주 중 첫 번째이기를 희망합니다. 전국의 나머지 주들도 뉴욕주의 리드를 따라 전국적으로 신뢰를 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라티노 목회 행동센터 총재 Raymond Rivera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기억에서 대중을 보호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의 손에 사망하는 가족 소식을 너무 종종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인종주의, 경제적 기회 및 대량 투옥과 관련하여 결국 해결되어야 하는 더 깊은 문제가 있지만 사법 제도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먼저 와야 합니다. Cuomo 지사는 정의 없이는 법의 지배가 희극일 뿐임을 이해한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멀지만 주지사의 조치는 터널 끝에 진실로 빛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New Greater Bethel Ministries의 John Boyd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거해 사는 법률은 모든 커뮤니티를 적절하게 보호해야 하는데, Cuomo 지사는 분명히 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개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취급에서 불공평, 편견 또는 부패의 인식이 제도 전체를 더럽힙니다. 특별검사가 필요하였는데 Cuomo 지사가 선임하여 본인은 그의 과단성 있고 올바른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사렛 커뮤니티 교회 Leslie Mullings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의 특별검사 선임은 너무 종종 경찰의 잔인성과 부주의의 피해를 입은 소수자 커뮤니티의 신뢰를 재건하는 데 긴요합니다. 이제 희생자 가족들은 난폭하고 위험하게 행동하는 경찰관이 책임을 지게 되고 우리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을 취하지 않고 구해야 하는법집행 관리로서 기소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행정명령이 시민을 해치지 않고 보호해야 하는 형사사법 제도의 톱다운 개혁의 디딤돌로 작용하기를 소망합니다."

Mosque of Islamic Brotherhood의 Al-Hajj Talib Abdur-Rashid 이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는 다시 한번 기준을 올리고, 신뢰를 증대하며 전국의 나머지 주들이 따를 예외적인 예를 세우며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사건들을 위해 Schneiderman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선임한 것은 리더십과 건전성을 위한 뉴욕주의 집념을 반영하는 스마트한 조치입니다. 저는 정의를 위한 주지사의 일관된 옹호에 박수를 보냅니다."

Federation of Protestant Welfare Agencies의 CEO 겸 집행이사인 Jennifer Jones Aust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별검사를 선임한 Cuomo 지사의 결정은 앞으로 여러 세대를 위해 사법 제도에 신뢰를 복구시킬 결정입니다. 뉴욕주는 형사사법 제도 개혁의 선두에서 다른 주들이 따라올 길을 닦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사법 제도가 필요로 하는 신뢰와 온전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이 행정명령을 발행한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전국 행동 네트워크의 Brooklyn 지부장 Kristen Fo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의 손에 비무장 민간인이 죽을 때는 정의가 구현되어야 하는데 이 행정명령이 그 기준이 충족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의 특별검사로 검찰총장을 선임한 주지사의 결정이 올바른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정성과 무사성이 우리의 사법 제도를 인도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 커뮤니티 대표들을 만나 주신 주지사와 검찰총장께 감사 드립니다."

Yonkers 소재 Metropolitan AME Zion Church의 Julius Walls Jr.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찰과 검사가 우리 커뮤니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법집행 관리가 민간인의 사망을 야기할 때는 똑 같은 그 긴밀한 협력 관계가 경찰관에게 유리한 편견으로 이끌거나 일반인들이 그러한 편견을 인식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독립된 특별검사 선임으로 우리는 많은 커뮤니티들이 우리 사법 제도에 대해 잃은 신뢰를 복원하는 쪽의 엄청난 조치를 취합니다. 저는 이 매우 중요한 조치를 취한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Mt. Neboh Baptist Church 및 Mobilizing Preachers and Communities의 Johnnie Green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올바른 조치를 취한 Cuomo 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는 무고한 민간인을 우선시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결코 사랑하는 이를 돌려받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로서 그들에게 존엄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우리는 더 밝고 더 안전한 미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지사실과 협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Hempstead 빌리지 촌장 Wayne H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이 연루된 민간인 사망 사건의 특별검사로 검찰총장을 선임한 Andrew Cuomo 지사의 통찰력과 조치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미묘한 성격의 문제가 점점 가시화되는 시기에 Cuomo 지사는 이러한 사건을 취급하는 방식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뉴욕주와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